축산물 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이력제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도입 배경

2020년 1월 1일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전면 시행되어 혐오로 3년째가 되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2016년 11월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와 2017년 8월에 발생한 계란 살충제 파동은 국민들이 국내 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2017년 당시만 해도 계란의 유통경로는 얕고, 계란 캡테기에 표시하던 농가코드는 임의로 지정이 가능했을 만큼 관리체계는 매우 열악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도의 주요 업무

닭 · 오리를 사육 중인 모든 농장에는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어 매달 사육현황신고를 하고, 닭 · 오리나 씨알이 농장 간 이동할 경우에는 양수 · 양도 신고, 부화장에서는 입란신고, 병아리가 닭 · 오리 사육 농장으로 이동 시에는 양수 · 양도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도계장과 도입장에서는 12차례의 이력번호를 발급하고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한다.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묶음번호와 이력번호를 표시 · 관리하고, 거래처에 납품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닭 · 오리를 구입한다.

선폐포장장은 12차례의 이력번호를 발급하고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한다. 수입반입업체에서는 재포장(HACCP) 하거나 선폐포장장에서 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소비자는 판매장에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계란을 구입한다.

계란 이력번호 체계 일원화 조정

닭 · 오리 이력제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계란 이력제는 제도 도입 배경에서부터 계란 산업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2018년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가정용 계란은 HACCP 인증을 받은 선폐포장업을 거쳐도록 의무화되고, 계란 검매기에 산란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기도 의무화되었다. 기존 수입반입업체도 HACCP 인증을 받으면 소분, 재포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2020년에는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도가 시행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성격은 유사하나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두 제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0년 12월 02일 국무조정실에서 계란 이력번호 체계를 계란 검매기 표시로 일원화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표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

<table>
<thead>
<tr>
<th>주요 내용</th>
<th>기존</th>
<th>변경</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이력번호</td>
<td>12 자리</td>
<td>10 자리(계약)</td>
<td>담아 오리는 12 자리</td>
</tr>
<tr>
<td>이력번호 표시</td>
<td>최소보장장 지</td>
<td>계란 견제기</td>
<td></td>
</tr>
<tr>
<td>사육현황</td>
<td>월령별 신고</td>
<td>주령별 신고, 1일 계란 생산량</td>
<td></td>
</tr>
</tbody>
</table>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무조정실 일원화 조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란 이력제 단속이 유예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력번호 12자리는 담아 오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계란의 경우에는 계란 견제기에 표시된 산란일자(4), 농장 고유번호(5), 사육환경 번호(1) 등 10자리로 변경되고 최소보장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다. 사육단계에서는 사육현황신고 방법이 월령별 신고에서 주령별 신고로 변경되며, 산란계 농가의 경우에는 1일 계란 생산량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표 1과 같다.

계란 이력제,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신고의 편의성이다. 기존에는 PC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모바일에서도 사육단계 신고는 물론 선별포장, 수집판매 단계도 모두 신고가 가능해졌다. 자동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여 매번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사육단계는 양도·양수 신고 시 알림 기능을 주로 옵션에서 제공하여 확인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모바일에서 기능을 활용하려면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을 설치하고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에는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별도로 발급신청 하였으나, 계란 견제기에 표시된 10자리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9.10.)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의무화된 사용량 선별·포장 확인서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별포장 실적 신고에서는 자동으로 신고와 일괄 신고 가능이 추가되었고,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수집판매업에서의 입고 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선별포장업에서 이력번호 등록 시 원란 입고 수량과 농장정보를 별도의 입력 없이
입에서 QR 코드 활용만으로 업력이 가능해졌으며, 거래처를 원료일 거래처, 화요일 거래처 등으로 구분하여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거래처 그룹관리 기능도 추가되었 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거래처를 사진에 등록하고 유형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수집판매업체에서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거래처 등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고신고 방법을 이력번호별, 거래처별로 세분화하였다. 기존에는 이력번호 하나와 거래처 한 곳만 선택이 가능했으나 이력번호 하나에 거래처 여러 곳, 거래처 하나에 이력번호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도입된 간편출고 신고이다. 출고신고에서 간편이 추가된 만큼 더욱 간소화된 신고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오늘 거래한 전체 거래처가 10곳이고 이력번호가 10개라면 거래처와 이력번호를 일괄 선택하고 종수량을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간편출고신고를 이용하면 그동안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집판매업체의 신고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래처를 직접하지 않고 ERP와 연계할 수 있도록 ERP 전산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200여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에 백업과 영상 백업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담·오리·계란 이력재 업무가 어렵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577-2633을 통해 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답·오리·계란 이력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답·오리·계란 이력재가 이제 막 생겨난 제도는 아니지만, 계란 이력재 신고방법에 그동안 변화가 생긴 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표 2. 계란 이력관리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
|-------------------------------|-----------------|-----------------|----------------|
| 주요 내용                   | 기존                                    | 변경                                    | 비고                           |
| 이력번호                    | PC                                      | PC, 모바일                               | 담·오리는 12자리               |
| 로그인 방법                  | 접속 시마다 로그인                        | 자동 로그인                               | 모바일                        |
| 선별·포장 확인서             | 없음                                     | 발급 기능 추가                            | ’21.11.11, 의무화             |
| 선별포장 신고                 | 개별신고                                | 일괄신고, 자동출고신고                     |                              |
| 거래처 관리                  | 개별 등록, 개별 선택                      | 개별 등록, 전체 선택                      | 거래처 등록 필요               |
| 간편출고신고                 | 개별 신고                                | 거래처, 이력번호 일괄선택                 |                              |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 번째 과제는 제도 이행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제도의 도입목적은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도는 우리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개선점을 찾고 서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가 제도 이행 대상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신고율이 높지 않고 신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력자료의 정확도 역시 떨어지게 될 것 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닭 · 오리 · 계란 이력제도를 통해 농장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출발점은 양계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정확한 신고업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양계